

濟州島 民家の 研究

張 保 雄

1. 序 論					
(1) 研究目的		(2) 研究方法			
2. 지 붕					
(1) 지붕의 材料		(2) 지붕 型			
3. 間配置의 型					
(1) 2間型		(2) 3間型		(3) 4間型	
4. 안끄리의 內部					
(1) 정지		(2) 상방	(3) 구들	(4) 곶팡	(5) 찻방
5. 建物配置型과 附屬建物					
(1) 二字型建物配置		(2) ㄱ字型建物配置			
(3) ㄷ字型建物配置		(4) ㄹ字型建物配置			
(5) 一字型建物配置					
6. 結 論					

1. 序 論

(1) 研究目的

지금은 조국의 近代化로 民家の 原型이 급속하게 破壞되며, 變容되고 있다. 우리 祖先의 庶民文化의 하나인 民家の 전국적인 實體把握과 保存問題가 매우 시급하다. 本研究는 韓國民家の 전국적인 연구의 一環으로 濟州島의 民家에 관한 文化地理的 연구이다. 종래의 聚落地理學에서의 民家研究는 環境決定論의인 觀點에서, 民家와 自然環境과의 關係, 또 간단한 形態區分만을 주로 연구하였다. 따라서 地表에 나타나는 民家를 설명하는데 한계가 있었고, 내용이 비교적 단조로워 깊이 있고 說得力 있는 연구가 되지 못하였다.

本研究의 假說은, 濟州島는 위치로 보아 海洋과 大陸 兩方面으로부터 文化가 전파되었고, 또 兩方面으로부터 受容된 文化가 民家에 나타나며, 비교적 兩文化의 要素가 잘 보존되었다고 본다. 그리고 현재는 濟州島 民家가 점차로 大陸文化의 영향

을 강력하게 받고 있어서, 陸地部의 民家構造를 모방하는 경향이 있다고 본다. 상기의 假說을 증명하는 외에 民家를 指標로 해서 濟州島의 地域性을 파악하고, 民家에 나타나는 우리 문화의 특질을 이해하는데 本研究의 목적이 있다.

(2) 研究方法

民家調査項目表를 갖고 대상 民家를 방문하여 직접 관찰하고 測定記錄하고 面接聽取하였다. 調査資料에 의해서 民家の 諸要素를 분석하고 歸納하여 지붕의 類型, 間配置의 類型, 敷地內의 建物配置의 類型 등을 분류하고, 民家型의 形成과 樣式의 傳播經路를 추구하는 文化地理學的인 研究方法 이외에 民俗學的, 建築史學的, 文化人類學的의 言語(方言)學의 研究法을 援用하고, 古文獻을 참고하여 民家型의 變化 過程을 파악하였다.

調査地域은 面 단위의 行政區域에서 비교적 古民家가 殘存하는 里, 洞이다. 즉, 朝天面 新村里, 朝天面 北村里, 舊左面 漢東里, 城山面 水山里, 城山面 古城里, 舊左面 濱坪里(牛島), 表善面 表善里, 表善面 城邑里, 南元面 新禮里, 中文面 中文

里, 安徳面 和順里, 大靜邑 仁城里, 翰京面 造水里, 翰京面 漢源里, 翰林邑 翰洙里, 涯月面 涯月里, 濟州市 內都洞 등지이다. 조사 대상의 民家は 비교적 古家이며, 修理를 가하지 않은 原型이 잘 보존된 農民의 家屋으로 했다.

調査期間은 1974年 7月 16日에서 27日까지 12日間이었고, 民家 50戶를 調査하였다. 調査時의 隘路點은 現地 住民들이 자기의 家屋에 관한 각종 基本數値에 관해서 잘 모르고 있는 點이었다.

2. 지 붕

(1) 지붕의 材料

제주도에서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민가는 茅屋이다. 따라서 지붕의 재료로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이 새(茅)이다. 대개의 경우는 耕地의 일부에 지붕의 재료로 쓰기 위해서 새왓(새밭)을 만들고 있으며, 새는 自給하고 있는 形편이다. 그러나 새왓이 없는 경우는 購入하거나 漢拏山 기슭이나 밭 주변의 自然生의 새를 베어 쓴다.

새왓으로 쓰이는 耕地는 다음과 같다. 2~3년 農作物을 耕作하고 耕地가 瘠薄해지면 2~3년 休耕을 하는데, 이때 새왓으로 또는 放牧地로 사용한다. 休耕栽培의 상태를 보면, 이 休耕의 정도는 地方에 따라 매우 다르다. 山間地帶에서는 10년에 8~9년은 休耕하고, 中山間地帶는 5년에 3년 정도, 海岸地帶에서는 5년에 1년 또는 3년에 1년 정도의 休耕을 하는데, 이 동안에 地力은 자연히 회복된다. 이 休耕地는 새왓 또는 牛馬의 放牧地로 供用되고 있다. 또 輪作栽培에 관해서 보면 濟州島에서는 재배하는 作物의 종류가 일정치 않고 그 耕作의 순서도, 또 循環하는 年數도 정해져 있지 않다.¹⁾ 上記의 내용은 日帝下의 제주도 농업의 한 양상이었으나, 지금은 海岸地帶에서는 休耕을 거의 볼 수 없다. 이것은 化學肥料와 堆肥의 施肥로 인한 農法의 개량 즉, 粗放의 農耕法에서 集約的 農耕法으로 전환하였기 때문이다.

지붕에 새를 이는 것은 1~2년에 한 번씩이며, 陸地에서 뱃짚을 이을 때처럼 나래를 엮어서 이지 않고, 새를 찢고 그 위에 새줄로 그물같이 엮어매

어 바람에 날리지 않게 하고 있다. 새줄의 굵기는 제주도를 東西로 나누어 다르게 나타난다. 東半部에서는 직경 3cm 內외의 새줄로 엮어매고, 西半部에서는 직경 4cm 內외의 새줄로 엮어매어 東半部보다 肉重한 감을 준다. 이것은 겨울의 北西風과 여름의 南西風이 西半部에 강하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최근에는 새줄 대신에 고무밧줄로 엮어매 지붕도 보인다. 이 줄은 4~5년간 사용할 수 있고 彈力이 있어 엮어매는데 힘지다고 한다. 새줄의 그물코(網目) 크기는 일정하지 않으나, 筆者의 調査로는 작은 것은 17×15cm, 가장 큰 것은 40×42cm이다.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것은 25cm 內외 ×25cm 內외의 것이다.

새(茅)지붕을 이는 行事는 대부분 각기 하고 있으나, 공동으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어떤 組織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웃간에 協同으로 하며, 이런 경우를 舊左面 漢東里의 夫禎現 老人은 ‘어운다’라고 말하고 있다. 城山面 水山里의 吳錫喜氏는 이런 共同作業을 ‘어울러’라고 말하고 있다. 새를 이는 時期는 12월에서 2월 사이가 된다.

둘째로 많이 쓰이는 材料는 slate이다. 이것은 지붕 改良事業의 一環으로 全島적으로 보급되고 있으나 畝栽培를 많이 하는 西歸浦를 중심으로 한 地域에 특히 많다. 長點으로는 每年 지붕을 이을 필요가 없고, 지붕의 물을 받아 사용하기 좋고, 새지붕보다 堅固한 점을 들 수 있다. 短點으로는 새보다 一時에 많은 費用이 들고, 새보다 直射 太陽光線에 대한 斷熱效果가 적어서 여름에 집안이 더웁고, 겨울에 약간 冷하며, 인공적인 지붕재료이기 때문에 濟州島 전체의 自然景觀에 調和를 이루지 못하고 異物感을 갖게 하는 흠이 있다.

세째의 지붕재료는 합석인데, 합석지붕은 매우 적고, 長短點은 slate와 같다. 단 slate보다 長期間 사용할 수 있다.

네째는 기와인데 朝鮮瓦는 古家에 많고 洋瓦는 과거 日人들의 建物에 많다. 둘다 바람에 날리지 않게 하기 위하여, 또 기와 틈으로 비가 들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기와와 기와를 石灰로 단단하게 接着시켰고, 따라서 陸地部의 기와지붕보다 白色이 진하게 나타난다.

1) 朝鮮總督府, 1929, 生活狀態調査(其二), 濟州島, pp. 40~42.

최근에는 濟州市와 西歸浦의 住宅地에 시멘트의 slab지붕의 집이 많이 세워지고 있다. 이것은 역시 強風地域의 지붕형태로서는 理想的인 것이라 생각된다.

濟州邑誌²⁾의 風俗條에 ‘風土錄人居皆茅茨 不編鋪積屋上以長木橫結壓地(之의誤)瓦屋絕少’라는 記錄이 있다. 즉, 새이엉은 엮지 아니하고 지붕위에다 퍼서 쌓고 긴 나무를 옆으로 얹어서 그것을 눌렀고 기와집은 거의 없다고 되었는데 이러한 長木을 橫結한 새지붕은 4~5년전에도 中山間地帶에서는 볼 수 있었으나 지금은 없다고 한다. (南元面 新禮里 梁錫周氏談).

邑誌의 記錄에서 새지붕을 설명하고 있는 것같이, 당시에는 지붕에 長木을 눌러 놓는 形態가 일반적인 것이었다고 볼 수 있는데 長木을 구하기 어려워지고, 또 새 줄로만 엮어 매는 것이 바람에 강하고 편리하기 때문에 日帝統治時代로 접어들면서 지금과 같은 모양의 새지붕이 생겼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日帝時代는 새줄만으로 엮어 맨 지붕과 長木을 얹어 놓은 지붕이 混在하는 時代였고, 현재는 長木을 얹은 새지붕을 볼수 없는 시대, 즉 새줄로 새지붕을 엮어 맨 것만이 존재하는 時代라 할 수 있다.

(2) 지붕형

새집(茅屋)의 지붕형은 陸地部에서 볼수 있는 우진각 지붕의 틀에다 새를 두텁게 덮었기 때문에 추너마루의 線이 보이지 않고, 길고 둥글게 된 半卵型의 낮은 돔(dome)의 모양이다. 지붕의 경사를 완만하게 하고, 추너마루의 角을 살리지 않고 둥글게 한 것은 強風地域에서 바람에 대한 抵抗을 最小限으로 줄이기 위한 耐風의 形態라 생각된다. 이러한 지붕의 型은 안끄리(안채)를 비롯하여 바끄리(바깥채), 모커리(열채), 쇠막과물막(외양간)이 문간(문간채) 등 모든 建物의 새지붕에서 볼 수 있다.

slate와 함석지붕의 경우는 四隅의 추너마루가 동마루에 모이는 우진각지붕으로 잘 나타난다. 우진각지붕도 뱃지붕이나 팔작지붕보다 바람의 저항을 적게 받는 지붕형의 하나이다.

다만 과거의 官衙, 樓亭, 文廟의 建物에서는 朝

鮮瓦의 팔작지붕형을 볼 수 있다.

3. 間配置의 型(칸나누기의 型)

濟州島의 民家를 間配置(칸나누기)의 면에서 보면 2間집, 3間집, 4間집 등 셋으로 나눌 수 있다. 이들의 공통점은 전부 楹집이고, 側入型은 하나도 없고 전부 前入型의 民家이다. 間配置의 基本要素는 정지, 상방, 구들, 고팡 등이다. 다음에서 間配置의 諸型의 특징과 變化를 事例研究를 통하여 살펴보자.

(1) 2間型

보통 2칸집이라 부르며, 土俗語로는 2칸막살이라 부른다. 대개의 경우는 老夫婦 또는 老婆가 외롭게 居住하는 집이다. 間配置의 특징은 상방이 없고, 정지 구들 고팡 뿐이고, 고팡이 없이 정지·구들 둘만 있는 경우도 있다(사진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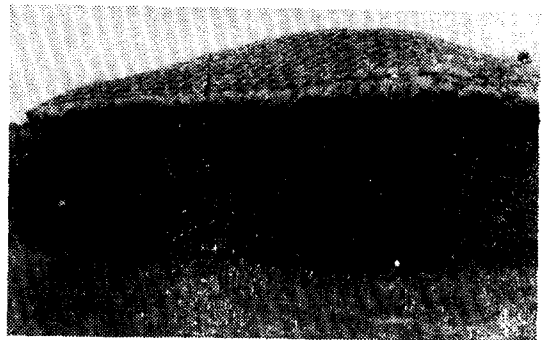


사진 1. 2間型民家. 北濟州郡 翰京面 造水里 한양동

事例①: 北濟州郡 翰京面 造水里 한양동 13 金振玉氏宅(그림 1)

상당히 古家였으나 建築年代를 알 수 없었다. 間配置는 매우 단조로와 1칸반의 정지와 1칸의 구들뿐이다. 정지가 넓은 것은 機能이 취사·作業場·고팡·食堂 등을 겸하고 있기 때문이다. 間配置 發達의 초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더 간단한 間配置型을 現地에서 찾을 수 없었다. 1칸 크기의 구들은 칩실로 사용되며 寢具·衣類 등을 얹어 두는 벽장이 구들의 北便에 있고, 밖에서 暖房用 불을 때는 굴목(아궁이)이 벽장 밑에 있다.

집을 둘러싼 外壁 즉 축담은 石壁으로 되었다.

2) 國史編纂委員會, 1973, 輿地圖書(下), pp. 1050~10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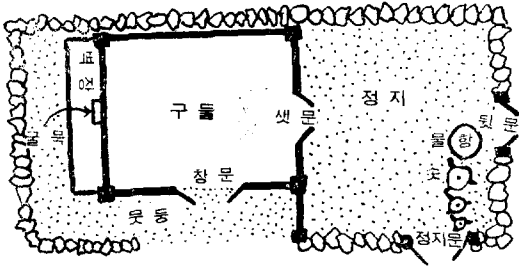


그림 1. 2間型 間配置圖. 北濟州郡 翰京面 造水里 한양동

玄武岩의 岩石 建築材가 풍부한 濟州島에서는 前面의 창문(방의 출입문)이 있는 곳을 除하고는 대개 防雨·防風을 겸하는 축담을 쌓는다. 정지벽에는 기둥을 세우지 않고 石壁 위에 서까래를 얹어서 정지 空間을 만든다. 널을 짠 상방이나 난간(뒷마루) 등이 없고 地面에서 30cm 정도 높은 구들과, 土間으로 된 정지 등 土座생활을 생각해 하는 民家이다.

事例② : 南濟州郡 表善面 城邑里 826 강일생氏宅 (그림 2)

建築年代는 確實치 않으나 4·3事件以前의 建物이며 곧 倒壞될 상태에 있다. 間配置는 정지·구들·고광으로 나뉘어지고, 事例 ①보다 前進된 형태라 볼 수 있다. 고광은 꼭물을 넣은 항아리를 놓아두는 방으로 사용되며, 흙바닥이기 때문에 습기 차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바닥을 구들 정도로 높였다. 고광벽에 採光·換氣·除濕用으로 창공을 만들어 놓았다. 정지는 炊事·作業場·연료 저장의 장소로 사용된다. 대개 정지에는 3개 이상의 솔이 솔덕(솔밭침돌) 위에 걸려 있다. 또 정지에 살래(찬장)와 물항(물독)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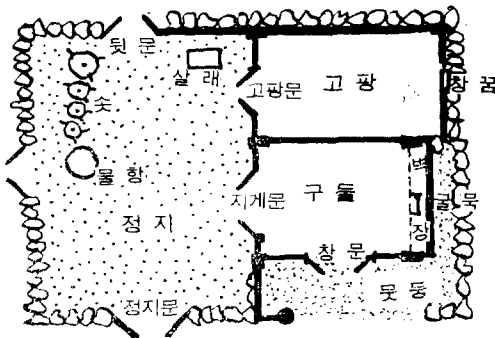


그림 2. 2間型 間配置圖. 南濟州郡 表善面 城邑里 826

事例③ : 北濟州郡 翰京面 造水里 한양동 432

梁斗圭氏宅(그림 3)

18년전에 建築된 비교적 新建物로서 장래에 3間집으로 増築할 것을 前提한 집이다. 현재 정지로 쓰이는 空間은 상방이 되고 그 옆에 정지를 이어낸다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 정지로 쓰는 곳도 角柱를 세웠고, 증축시에는 축담만 헐어내면 된다. 정지에 닭망(닭장)을 두고 있는 것이 특이하다. 지게문은 골흙에 밀어 닫게한 미닫이로 되었다. 원래는 당길문인데 變化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造水里에서는 고광을 안방이라 呼稱하며 기능은 고광과 동일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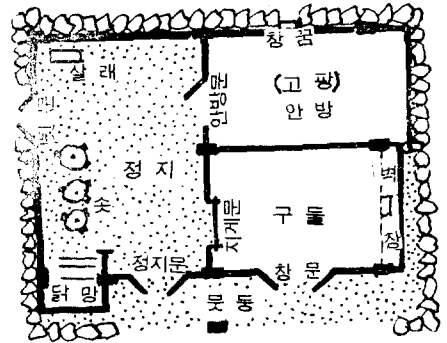


그림 3. 2間型 間配置圖. 北濟州郡 翰京面 造水里 한양동 432

(2) 3間型

현재 濟州島民家의 標準型 또는 基本型이라 할 정도로 가장 많은 分布를 보이는 間配置型이다. 前面으로 3間, 側面으로 2間, 즉 3間집이다. 間配置의 要素는 정지·상방, 구들(큰구들, 조근구들)·고광 등이다. 정지는 집을 向해서 左側에 있는 경우가 많으며, 정지 空間의 一部를 조근구들(작은방)로 변형시킨 것도 있으며, 아예 정지가 안 꼬리에 없는 경우도 있다. 상방은 例外없이 3間의 中央部에 위치한다(사진 2).

事例① : 南濟州郡 城山面 水山里 川外洞 金太完氏宅(그림 4)

62년전에 建築된 건물이다. 2間집에서 3間집으로 옮겨가는 中間型과 같은 생각을 갖게 한다. 즉 정지와 상방사이의 벽에 있는 정지 셋문에는 문짝이 없고, 상방도 정지와 같이 土間으로 되었고 그 위에 마른 새(乾茅)·보리짚·조짚을 깔고, 한



사진 2. 3間型 民家. 南濟州郡 南元面 新禮里 778

쪽에는 덩석도 깔고 있다. 상방은 정지에서 分化된 空間이라 생각된다. 상방에는 부섭 또는 봉덕이라 부르는 돌화로(爐)가 박혀 있다. 현재는 사용하지 않으나 過去에는 暖房·照明·乾燥·副食炊事用으로 사용했다고 한다. 古老의 말에 의하면 過去에는 어느 民家에나 부섭이 있었고, 부섭 옆에서 길삼, 베틀로 옷감짜기, 바느질, 새를 사용하는 作業, 婚喪祭時 적을 부치는 일 등을 했고, 장마철에는 衣類를 말리고 늦은 봄 보리고개를 당하면 푸른 보리이삭을 고리에다 넣어 말리는 데도 사용했다고 한다. 겨울철에는 천장에다 철사를 걸고 무쇠남비를 매달고 물을 끓였으며, 婦女와 幼兒는 구들에서 자고 成人男子들은 상방에서 옷을 입은 채로 또는 개가죽(개가죽 털옷)을 입은채로 부섭 옆에서 잤다고 한다. 몽고地方의 爐(몽고語로 부섭)나 日本의 이로리(爐)와 같은 것이었다고 생각된다. 森林이 적은 海岸보다 나무가 많았던 中山間, 山間地帶에서 많이 사용했다고 한다. 현재는 燃料로 나무를 사용하기 어렵게 되어 부섭은 사용되지 않고, 放置 상태에 있다. 溫突이 발달치 못한 冷涼한 氣候圈에서 共通으로 볼 수 있는 것 중의 하나가 부섭이라 생각된다.

정지에서 솔과 벽 사이에 있는 솔뿔판은재(灰)를 모아 두는 空間이다. 民家의 대부분의 정지벽은 石壁으로 되었고, 윗가지를 엮고 거기에다 흙을 바른 土壁으로 안 된 것은 火災를 防止하기 위한 하나의 手段이라 생각된다.

구들에 있는 벽장을 水山里에서는 시렁이라 부른다. 구들에 붙이는 아궁이를 굴목이라 하고, 또 굴목에다 불을 지필 수 있도록 된 房벽과 石壁(外壁) 사이의 空間도 굴목이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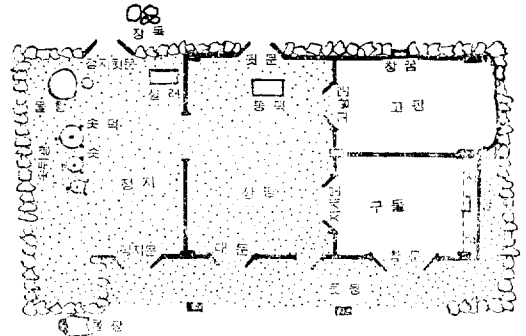


그림 4. 3間型 間配置圖. 南濟州郡 城山面 水山里 川外洞

事例② : 南濟州郡 表善面 表善里 송인흡氏宅 (그림 5)

主人의 말에 의하면 100여년 전에 세워진 建築物이다. 事例①과 같은 間配置이나 상방을 板子房으로 한 것만이 다르다. 문둥은 구들과 상방에 직접 비가 들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둔 空間이라 생각된다. 또한 처마가 구들과 상방 前面으로 길게 내려옴으로써 遮陽의 기능도 한다. 강한 바람이 불 때와 비가 세게 올 때는 퇴기둥(退柱)에 풍채를 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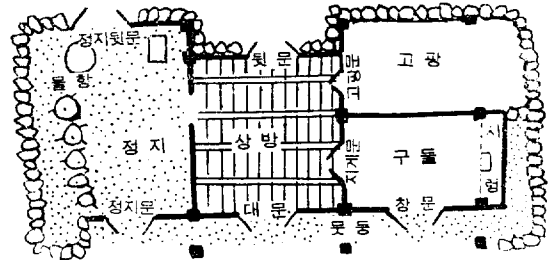


그림 5. 3間型 間配置圖. 南濟州郡 表善面 表善里

달고, 집앞에 풍채(風遮)를 내려서 막는다. 고팡에는 굴목이 없고 土床의 방이다. 창꿈(光窓)이 있으나 내부는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어둡다.

事例③ : 南濟州郡 表善面 城邑里十二班 趙一訓氏宅(그림 6)

建築年代는 120여년 전이라 한다. 그러나 이문간의 上檉文에 隆熙3年 乙酉(1909年)라는 記錄이 있다. 안끄리와 이문간의 建築年代가 다른 것 같다. 과거 城邑里에서 大農家의 하나로 보통 民家보다 規模가 크고 잘 지은 집이다. 外見으로는 3間집이나 정지의 前面과 상방의 前面이 각각 1間半으로 되었다. 넓은 정지에 조근구들(작은방)이 들어

가 있는데 이것은 3間집에서 방이 2개 생기는初期의 形態를 보여주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庶民의 民家에서는 板子를 많이 사용할 수 있는 경제적 여유가 없으므로 고팡을 土床으로 만드는 것이 보통이나 이 집에서는 濕氣를 적게 하기 위해서 고팡에 널을 뒀고, 창꿈 대신에 뒤로 고팡뒷문을 크게 내고 있어서 採光도 좋고, 고팡에 물건을 넣고 내기도 좋다. 창문은, 안에는 맞미닫이, 밖에는 통판자의 두짝열개를 달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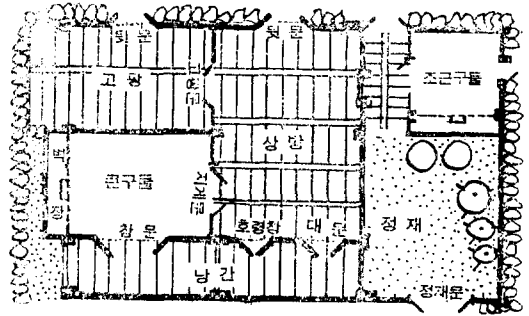


그림 7. 3間型 間配置圖. 南濟州郡 南元面 新禮里로 낭간을 만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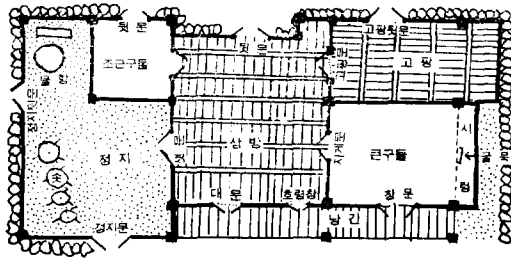


그림 6. 3間型 間配置圖. 南濟州郡 表善面 城邑里 十二班

상방은 넓어서 고팡에 넣지 못한 것을 구석 일부에 쌓고 있으며, 보통 民家에서는 상방 前面에 통판으로 된 두짝열개의 대문뿐인데, 이 집에는 호령창이 하나 더 있다. 호령창은 장남(壯男, 일꾼)에게 무엇을 시킬 때 사용하고 또 집에 出入하는 사람들을 호령창을 통해서 확인한다. 이 창문 역시 통판자의 작은 두짝열개로 되었다. 못중에다 난간(뒗마루)을 만들었다.

事例④ : 南濟州郡 南元面 新禮里 778 양상옥氏宅(그림 7)

新禮里에서 가장 오래된 古家이다. 100여년 전에 建築되었다. 間配置의 特色은 정지의 後部에 조근구들이 있고, 이것과 상방 사이에 마루를 깔고 있다. 이 마루는 4間집에서 볼 수 있는 찻방의 發生形態라 생각된다. 상방과 조근구들과 연락하는 通路도 되고 밥상을 준비하는 空間으로도 이용된다. 이 집의 東向과 北向에 동백나무의 古樹가 防風林을 이루고 있다. 큰구들은 夫婦와 幼兒 및 小兒의 침실로 사용되고, 조근구들은 姉妹가 사용하며, 바끄리의 구들은 少年들의 침실과 공부방으로 사용된다.

事例 ③과 같이 고팡은 판자방이며, 두터운 널

事例⑤ : 北濟州郡 涯月面 涯月里 金智奉氏宅(그림 8)

涯月里는 4·3事件時 建物の 피해가 적었던 地域으로 古民家가 잘 保存되어 있다. 이 집은 47年前에 建築되었고 3間집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間配置의 型이다. 정지가 거의 $\frac{1}{2}$ 로 나뉘어 한쪽에 조근구들을 들고 있다. 여기에서도 고팡을 안방이라 부른다.

안끄리에서 구들이 들일 때는 고팡과 접한 구들을 큰구들이라 하고 나머지를 조근구들이라 한다. 涯月里에서는 뒷낭간이 달린 집을 많이 볼 수 있는 것이 島内の 他地方과 다른 點이다. 상방을 삼방이라 부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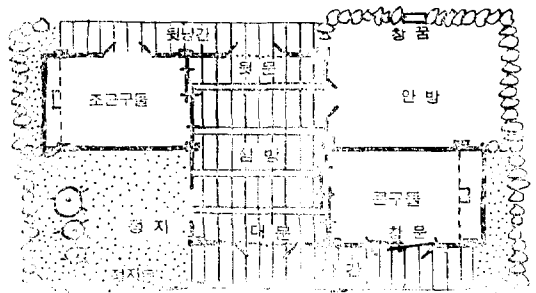


그림 8. 3間型 間配置圖. 北濟州郡 涯月面 涯月里

事例⑥ : 北濟州郡 朝天面 北村里 3구 524 김박미氏宅(그림 9)

北村里의 民家は 4·3事件時 전부 소실되었고 김박미氏宅만 남았다고 한다. 建築年代는 정확히 모르나, 4·3事件前의 建物이라고만 알려졌다. 안끄리에서 정지가 없어진 型이다. 따라서 이 집의 경우는 정지가 바끄리의 중앙에 있다. 안끄리와 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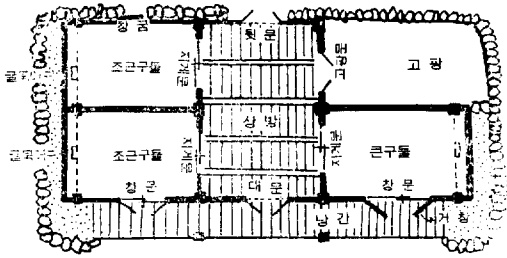


그림 9. 3間型 間配置圖, 北濟州郡 朝天面 北村里

지가 분리된 民家型이다. 조근구들 2개가 있으나 改築한 흔적이 역연하다. 즉 원래는 안끄리에 정지가 있었으나 몇 개의 방이 필요하게 되어 정지의 공간에 조근구들을 2개 만들고 정지는 바끄리로 逐出되었다.

굴목어귀로 들어가서 굴목에 불을 지필 수 있게 하였다. 거창은 防風 防雨用의 통널로 된 문 짝이다.

事例⑦ : 南濟州郡 城山面 水山里 東門洞
吳錫喜氏宅(그림 10)

古家を 買入하여 33년전에 現位置에 移築한 집이다. 間配置는 舊家の 構造 그대로라고 한다. 안끄리와 정지가 분리된 型이다. 이러한 型의 民家에서는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상을 들고 마당을 지나 안끄리로 와야 하는 不便한 點이 있으나 편리한 점도 있다. 즉 안끄리 内部에 연기가 차지 않고, 여름에 정지에서 나오는 熱氣를 피할 수 있고, 火災의 염려가 적은 점 등이다. 이 집의 특이한 점은 조근상방(筆者가 板床으로 復元)이 있고 그 가운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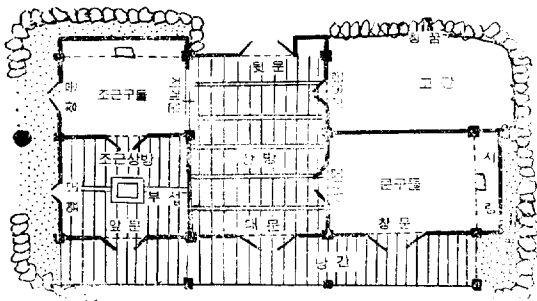


그림 10. 3間型 間配置圖, 南濟州郡 城山面 水山里 東門洞

부섭(67×73 cm)이 있다. 부섭 또는 봉덕(石爐)은 暖房, 照明, 乾燥, 副食炊事 등에 쓰인다(사진 3). 큰구들의 굴목과 石壁 사이에 닭이 앉을 수 있는 쾃대를 매달아 놓고 닭장으로 이용한다. 닭을 큰



사진 3. 부섭(봉덕)

구들 옆에 두는 것은 시계가 없었던 時代의 소박한 생활의 遺習이라 생각된다. 鷄鳴丑時라 하여 닭을 음으로 時刻을 알았다. 집의 前面은 문둥으로 되었으나 筆者가 난간으로 復元시켜 그림을 그렸다.

(3) 4間型

古來로 民家の 間數는 1, 3, 5, 7, 9, ……등 奇數를 취하고 偶數를 取하지 않는 慣習이 있으므로 4間 집의 分布는 매우 적다. 現地 住民들도 4間집에 居住하면 모든 일이 잘 안 되므로 4間집의 建築을 피한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4間집은 안끄리의 内部가 擴張됨에 따라 편리한 점이 있으므로 그것대로의 存在 이유가 있는 것이다. 3間型의 事例⑦의 間配置에 정지를 더 붙인 間配置와 같이 보인다. 4間型의 間配置의 요소는 정지·창방·구들(큰구들, 조근구들)·상방·고방 등이다. 안끄리의 前面으로 4間, 側面으로 2間的 民家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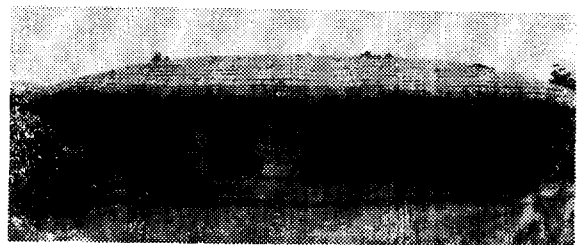


사진 4. 4間型民家. 北濟州郡 舊左面 演坪里 迎日洞(牛島)

事例① : 北濟州郡 舊左面 演坪里 迎日洞(牛島)
(그림 11)

牛島에서는 最古民家에 속하고, 100여년전에 建築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建築年代를 그대로 믿을 수는 없다. 4間型에서 3間型의 間配置와 다른 點은 창방이 있는 점이다. 창방은 식사 준비·食堂·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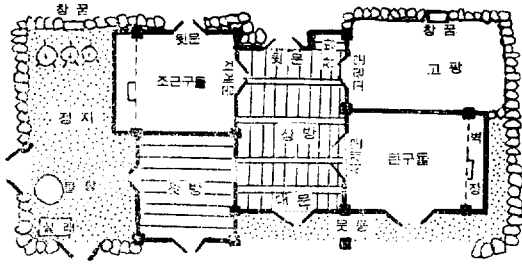


그림 11. 4間型 間配置圖. 北濟州郡 舊左面 演坪里 迎日洞(牛島)

婦人의 作業場 등으로 이용되는 空間이다. 정지가 안끄리에서 분리된 型보다는 안끄리에 부착되어 있는 것이 便利하므로 4間의 間配置가 考案되었다고 생각되어진다. 그러나 一般的으로 濟州島의 民家는 길게 長方形으로 만드는 것보다는 길이를 줄이고 別棟으로 分散 配置하는 傾向이 있다. 強風과 火災를 의식한 民家의 考案이라 생각된다. 상방에 있는 장방은 祭器를 보관하는 곳이다. 牛島에는 簡易水道 施設이 없기 때문에 在來의 奉天水를 음료수로 사용하고, 또 slate지붕이 보급됨에 따라 降雨時 지붕의 물을 貯水하여 사용하기도 한다. 지붕의 材料 새(茅)는 城山面 古城里, 水山里 등지에서 구입하여 사용한다.

事例② : 北濟州郡 翰京面 造水里 文亮華氏宅(그림 12)

25年前에 建築된 建物이다. 事例①과 같은 間配置이나 çat방과 조근구들의 위치가 바뀌었을 뿐이다. 지붕의 새는 새왓(새밭)에서 自給되며, 고무땀출로 지붕을 얹어냈다. 정지문 앞에 창고라는 空間이 있는데 여기에다 농기구를 둔다. 고팡을 안방이라 부른다. 지계문이 미단이로 된 것은 개량된 문의 형태이다. 정지에 재를 모아 두는 불재통이 있다. 상방을 마리라 부른다. 제주도 대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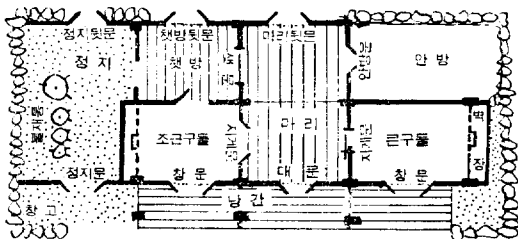


그림 12. 4間型 間配置圖. 北濟州郡 翰京面 造水里

분의 지역에서는 마당에다 바람에 먼지가 날리지 않게 짐질(보리짚, 조짚)을 끼는데, 이곳의 마당 흙은 먼지가 일지 않으므로 평소에는 짐질을 깔지 않고 멍석을 펼 때만 짓지 않게 하려고 간다고 한다.

事例③ : 北濟州區 涯月面 涯月里 김 두정氏宅(그림 13)

40여년전에 建築되었다. 當時 涯月面 面長의 住家였다. 4間型的 間配置 要素를 전부 갖추고 있다. 다만 濟州島의 典型的인 間配置와 다른 점을 보이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陸地部의 影響을 크게 받았음과, 생활에 편리하게 間을 배치하였음을 알 수 있다. 큰구들이 정지에 接하여 있고, 정지에서 炊事用 熱이 구들 밑으로 들어가게 되었음은 陸地部의 影響이라 생각된다. 안방(고팡)과 정지가 통하게 되어 있는 것은 생활에 편리를 도모한 것이라 생각된다.

제주도의 民家도 장차에는 이와같은 間配置와 정지구조를 갖게 되리라 豫見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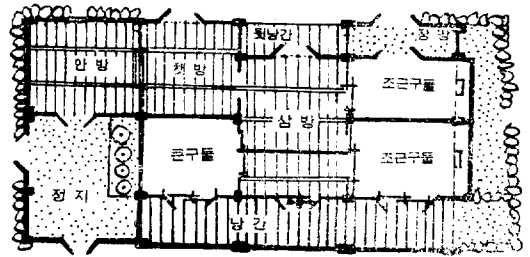


그림 13. 4間型 間配置圖. 北濟州郡 涯月面 涯月里

4. 안끄리의 內部

안끄리에서 정지·상방·구들·고팡·chat방의 構造와 機能 및 그의 變遷을 考察하고 各各의 呼稱에 關해 島內에서 地域別로 어떠한가를 살펴본다.

(1) 정지

안끄리에서 정지가 차지하는 面積은 2間型에서는 1/2, 3間型에서는 1/3, 4間型에서는 1/4로 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정지의 機能이 과거보다 적어짐에 따라, 3間型에서 1/6로 줄어드는 경우도 있고, 안끄리에서 정지가 逐出되는 경우도 생겼다. 다음 그림에서 정지의 위치와 정지 空間의 變化를 살펴보자(그림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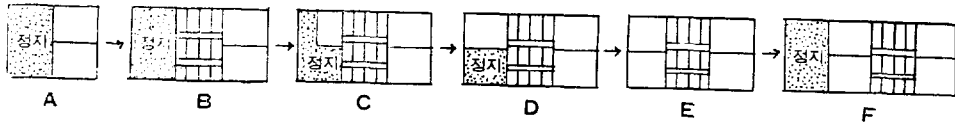


그림 14 정지공간의 변화

A에서 D까지는 정지면적이 점차 줄어드는 과정이며, E는 정지가 없는 형태이고 F는 4間집에서 정지의 위치이다. 3間집에서 안끄리에 정지가 없고, 바끄리에 정지를 만든 경우(朝天面 北村里 김박미氏宅)와 모커리에 정지를 만든 경우(朝天面 北村里 김진구氏宅) 등이 있다. 4間집은 정지가 없는 3間집에다 정지를 달아낸 형태로 보인다. 정지를 정재라 부르는 곳(南元面 新禮里, 中文面 中文里, 濟州市 內都洞)도 있다. 부엌이라는用語도 많이 쓰여지고 있다.

정지벽은 돌로 쌓고 内部에 흙을 바른다. 陸地部에서처럼 귀(隅)에 기둥을 세우고 壁中防을 옆으로 대고 윗가지를 엮고 흙을 바른 土壁을 만들지 않는다. 이것은 火災를 意識한 壁構造라 생각된다. 솔이 걸린 벽 위에는 2~3개의 창문을 만들어 排煙과 採光의 기능을 하게 한다. 창문을 크게 만들고 두 짝의 문을 만들 경우는 光창(舊左面 漢東里, 夫禎現氏宅)이라 부른다. 정지의 出入은 정지문과 정지뒷문으로 한다.

정지 뒷문 밖에 장독이 있고, 이곳은 높은 甍를 만들지 않고 地面에 항아리·단지 등을 모아 놓았다. 정지문 밖에는 外壁 옆에 높이 60~70cm되게 넓은 石板을 얹어놓았는데, 이것을 물판이라 부른다 이곳은 물을 길어 오는 허벅을 놓는 甍가 된다. 정지에서 상방으로 통하는 셋문이 있다.

정지 內에서 長壁을 向해서 또는 隅를 向해서 솔덕(솔독?)을 각각 셋씩 놓고 그 위에 솥을 놓는다. 솔의 個數는 4~5개이며, 크기의 순서에 의해서 큰 솔(메주콩·행사시 사용)·외말치(식구가 많아졌을 때 사용)·밥솔·국솔으로 配列되었다. 솔과 벽사이에 재(灰)를 모아 두는 空間을 솔뒤광(城山面 水山里), 솔등열(表善面 表善里) 불재통(翰京面 等水面) 솔못(翰京面 漢源里)이라 각각 부른다. 炊事用 지들거(燃料)는 새(乾茅)·보리짚·조짚·고사리대·松葉·松枝 등이며, 구들 暖房用과는 다른 燃料이다. 솔

에다 때는 燃料의 熱은 炊事에만 쓰이고, 餘熱을 구들 아래로 들이지 않은 것은, 구들이 들어오기 以前의 솔걸이 형태라 생각되며, 3 個의 솔덕에 솔을 걸고 四季節 炊事하는 것은 南方文化要素의 하나라 생각된다. 이러한 솔걸이는 沖繩에 많았던 형태이다.³⁾

정지의 主要 機能은 炊事·作業場·乾燥場·貯藏場 등이며 房의 暖房과 何等의 關係가 없는 것이 陸地部와 크게 다른 점이다. 정지와 안끄리가 분리되어 別棟으로 되어 있는 경우를 생각해 보자. 원래는 정지가 안끄리에 있었으나 정지의 기능이 炊事하나로 줄어들자 넓은 정지 空間에 조근구들이 생기고, 또 방을 더 만들어 조근구들이 2個가 되었고, 자연히 정지는 바끄리·모커리로 밀려나게 되었다. 만약에 원래부터 안끄리와 정지가 別棟으로 있었다면 所謂 日人들이 말하는 二棟造로, 東南아시아·미크로네시아 以東, 벨라네시아, 폴리네시아 등의 太平洋地域에 많은 南方의 形態⁴⁾라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과거에는 정지의 中央에 부섭(石爐)을 묻어 놓고 나무로 불을 피워 감쌀질을 했고, 부식도 끓이고 불씨를 묻어두는데 사용했다(大靜邑 仁城里, 김정순老婆談). 현재 정지의 부섭은 거의 없어졌고, 아주 드물게 볼 수 있다. 그러나 古老에 의하면, 少時에는 많았다고 한다. 또 어느 정지에서나 공통으로 볼 수 있는 것 중에는 큰 물항과 살래(찬장)가 있다. 물항의 위치는 큰 솔 옆에 있는 경우가 많고, 살래는 물항 옆, 또는 상방 가까이 놓는다.

改良된 솔걸이도 수는 적지만 보이고 있다. 즉 정지 內의 조근구들의 굴목에다 부뚜막을 만들고 솔을 걸어 炊事하고 그 熱이 구들 밑으로 들어가게 만든 것인데 장래에는 이런 식의 아궁이가 많이 생길 것이라 생각된다. 습기가 많은 여름과 또 비교적 冷涼한 겨울은 구들에 熱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3) 鶴藤鹿忠, 1972, 琉球地方の民家, 明玄書房, 東京, pp. 59~68.

4) 鶴藤鹿忠, *op. cit.*, pp. 59~68.

(2) 상방(상방)

상방은 3間집, 4間집에서 볼 수 있다. 3間집에서는 중앙에 위치한다. 일반적으로 漢字로 床房이라 表記하나, 삼방(朝天面 新村里, 滙月面 滙月里, 濟州市 內都洞)이라 하는 곳도 있고, 마리(中文面 中文里, 安徳面 和順里, 大靜邑 仁城里, 翰京面 造水里, 翰京面 漢源里, 翰林邑 翰洙里)라 呼稱하는 지방도 있다.

대체로 상방이라 呼稱하는 지방은 過去の 旌義縣과 濟州牧의 東部이고, 삼방이라 呼稱하는 곳은 대부분의 濟州牧의 地域이나, 濟州牧의 西部에서는 삼방이 압도적이고, 東部에서는 상방과 混用되고 있다. 마리는 과거의 大靜縣에 속하는 지역에서 많이 呼稱되고 있다. 特異하게 청방(廳房)이라 呼稱하는 곳(朝天面 北村里, 三部落 衿 衿子氏宅)도 있다.

床房은 日인들이 漢字로 音譯내지 意譯한 表記라 생각된다. 床房하면 板子를 間 房으로 연상되나 실제로는 판자를 깔지 않은 土間의 낮은 방도 상방이라 부르고(城山面 水山里) 있다. 濟州島의 民家は 원래 土座式住居로 土間의 상방이 있었고 후에 板子를 間 床房이 생겼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상방은 판자와 관계없이 機能에 의하여 불려진 것으로 볼 수 있고,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방은 呼稱에 의해서 그 기능을 알 수 있다.

상방의 기능은 매우 다양하여 間配置에서 中央에 位置할 만한 役割을 하는 空間이다. 즉, 祖先의 祭祀, 가족의 集會, 夏節의 寢所, 接客, 食事 등 多樣하게 이용된다. 따라서 筆者는 床房보다 生活하는 房의 뜻으로 삼방(living room), 즉 삼방이 원래의 呼稱이라 생각되고 他의 것은 후에 變化된 것이라 보여진다. 현재의 추세는 삼방이 上방化되어 가며, 삼방의 呼稱이 床房에 의해서 蝕食당하고 있는 과정에 있다.

古老의 말에 의하면 過去에는 상방에 烽덕(또는 부섭)이 있었다고 한다. 지금은 거의 없어졌고 있다고 하더라도 使用하지 않고 있다. 부섭은 蒙古의 室內常備爐⁹⁾의 呼稱과 一致되는 점으로 보아 蒙古에서 傳來된 可能性을 보여준다. 烽덕은 暖房 乾燥(의류, 곡류), 照明, 炊事(고기굽기, 적부치기, 물끓이기) 등의 기능을 갖고 있다. 玄武岩을 파서

되(升) 모양으로 만든 것도 있고, 상방이 土間인 경우에는 흙바닥을 파고 四方에 큰 돌을 놓아 만든 烽덕도 있다. 烽덕의 위치는 상방의 中央에서 뒷문의 中間이다.

상방의 前面 出入口를 대문이라 하고 後方의 出入口를 뒷문이라 부른다. 모두 통판자로 된 두짝의 당길문이다. 대문 옆에 작은 문이 있는 경우도 있는데 호령창(表善面 城邑里, 南元面 新禮面), 또는 제창문(中文面 中文里, 安徳面 和順里)이라 부른다. 出入하는 사람을 확인하고, 사람을 부를 때, 이 문을 사용하며, 通風의 기능도 갖고 있다. 상방에 천장은 없고 서까래가 보이며, 서까래 사이사이에 흙을 발랐다. 대체로 연기에 그을려 黑灰色을 띠고 있다.

상방에 間 판자의 모양은 古民家에서는 우물마루형이며, 건축 연대가 4·3事件以後 것은 장마루형이 비교적 많다. 우물마루 모양에서 귀클에 흙을 파서 널이 빠지지 않게 한 것을 골마리라 하고 귀클 위에 널을 얹어 놓은 것은 뒷마리라 한다(表善面 表善里 송인홍氏談). 골마리는 귀클이 平行하지 않고 수렴하며, 뒷마리는 귀클이 平行한다(그림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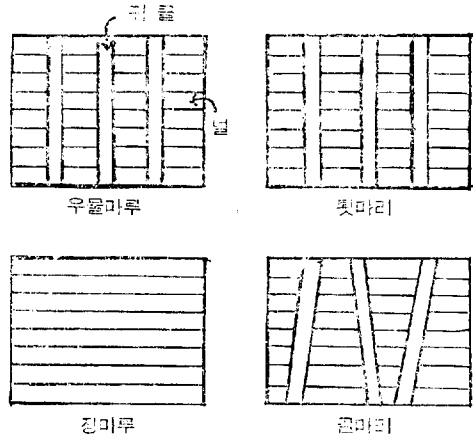


그림 15. 마루의 모양과 구조

(3) 구 들

濟州島에서는 온돌방을 구들이라 한다. 제주도에서 방이라 함은 온돌 설비가 되지 않은 상방, 고팡을 말한다. 즉, 구들과 방을 구별하여 사용한 것 같으나 지금은 混用하는 경향이 생기고 있다.

5) 石宙明, 1971, 濟州島資料集, 寶晉齋, 서울, p. 145.

崔世珍의 「訓蒙字會」에서 보면 炕을 ‘구들장’이라訓을 달았다. 炕字는 滿州에서는 온돌설비를 갖춘 房의 의미가 있다. 우리 나라에서도 구들하면 방 밑에 火氣를 통하게 한 暖房法 및 그 房을 의미한다. 濟州島에는 원래 구들이라는 暖房法이 없었는데, 導入된 歷史가 오래 되지 않기 때문에 방과 구들의 用語를 구별하게 되고 지금도 그대로 傳해지는 것이라 생각된다. 本島에 溫突이 傳來된 時期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魚叔權의 「稗官雜記」卷四 琉球國 風俗條에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嘉靖壬寅 濟州人林孫等 漂到琉球國 留四年 轉解中國 因得回還 柳大容採其語 作琉球風土記(中略) 人居皆用板爲樓 不設炕房云云」

上記의 기록이 만일 濟州人의 報告, 그대로면 十六世紀 以前에 溫突이 濟州島에까지 傳播되었다고 할 수 있다. 다음의 제주군誌의 기록⁶⁾을 보면 일반 民家에는 온돌이 매우 稀貴하였던 것 같다.

「風土錄人居皆茅茨不編 鋪積屋上 以長木橫結壓之 屋瓦絕少 品官人外 無溫突 填地爲坎 掘之以石 其上以土泥之 既乾 寢處其上」

즉, 온돌은 品官人 外의 一般 民家에는 없고, 民家에서는 방 바닥을 파내고 그곳에다 돌을 깔고 그 위에 흙을 바르고, 마르면, 그 위에 寢處로 했다는 것이다. 지금의 고평의 방바닥 구조와 같은 것이다. 風土錄은 金淨(1486~1520)의 著作이다. 따라서 제주도에 온돌이 일부 品官人의 家屋에 16世紀 이전에 설치되었음을 알 수 있다. 「東國輿地勝覽」의 濟州牧 風俗條에도 비슷한 기록이 있다.

「民俗癡儉 且多茅屋 細民無竈突 處於地」

즉, 백성의 풍속은 어리석고 검소하며, 또 새(茅)집이 많고 가난한 사람들은 부뚜막과 온돌이 없고 땅바닥에서 자고 거처한다는 것이다. 상기의 諸記錄은 제주도에 온돌이 널리 보급되지 못하였음을 설명해 준다.

현재 제주도의 온돌은 陸地部에 비하면 退進化 狀態라기 보다는 未發達의 상태이다. 구들의 1/3 정도만 온돌설비를 했고, 드물게 구들 전체를 온돌설비를 한 곳도 있다. 구들고래의 모양은 중앙에 넓은 고래, 그 양 옆으로 4~5개의 작은 고래를 만들었고, 굴뚝에서 중앙 고래에다 乾馬糞, 乾牛糞,

고시락(보리, 조이삭)을 깊숙히 밀어 넣고 入口에다 불을 붙이고 入口를 돌로 막아두면 밤새 연소되어 제주도의 겨울 기온에 적당한 溫度가 구들에서 유지된다. 굴뚝은 없으나 자세히 살펴보면 집의 前方地面에 排氣내지 排煙의 구멍이 뚫려 있다. 집에 따라서는 그 氣孔이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구들의 構造와 燃料로 보아 陸地部의 溫突方法과 다른 遊牧民의 暖房法이 아닌가라고도 생각된다.

3間집에서 구들이 하나일 때는 大小의 구별없이 구들이라 하고 둘 이상일 때는 고평과 接한 구들을 큰구들(큰 방) 나머지를 조근구들(작은 방)이라 呼稱한다. 큰구들은 夫婦, 幼兒의 침실, 또는 來客의 침실로 사용되고, 祭室, 產室, 忌室 등으로도 사용된다. 큰 구들은 陸地部의 안방과 다르다. 즉 濟州島의 婦人들은 주로 밭일과 물질로 屋外活動의 時間을 많이 갖기 때문에 안방이 발달하지 못하였다. 큰구들의 넓이는 일반적으로 8尺×9尺의 것이 가장 많다. 조근구들은 아이들의 방이다. 방바닥에서 천장의 높이는 비교적 낮은 편으로 2m 내외이다. 안그리에서 구들에만 천장이 있고 천장을 처나반이라 부른다. 江原道 山地의 民家에서 볼 수 있는 防寒 위주의 천장처럼 魚骨形으로 천장귀클이 가운데를 가로 지르고 양 옆으로 천장쌀이 5~6個 걸쳐 있고, 천장쌀 사이에 서슬을 놓고 그위에 흙을 폈다. 천장의 두께는 10cm 內外이다(그림 16). 천장에 흙을 깔고 두텁게 하면 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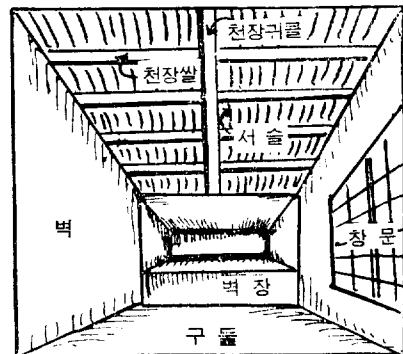


그림 16. 천장 구조

울에 溫和하고 여름에 서늘하며, 쥐가 뛰어도 울리지 않고, 또 쥐가 放尿하여도 얼룩지지 않으며

6) 國史編纂委員會, *op. cit.*, pp. 1050~1051.

고광에서 천장과 지붕사이의 空間을 다락과 같이 사용할 수 있는 利點이 있다. 천장의 형태로 보아 陸地部, 特別히 山地型民家⁷⁾의 천장형태가 그대로 傳來된 것이라 생각된다. 구들에서 천장을 바라보면 서늘에 흙을 곱게 발라서 천장귀를과 천장쌀만 보인다. 현재는 그 위에다 종이를 바르고 있으며, 집에 따라서는 종이 바르기가 불편하므로 천장에다 合板을 붙이고 종이를 바른 경우도 있다.

큰구들과 조그구들에서 굴목 쪽으로 壁의 上半部에 벽장이 있다. 이 벽장에 寢具와 옷장을 넣어 두고, 벽장문이 있는 경우도 있으나 대개 문이 없다. 壁藏을 城山面과 表善面에서는 시렁이라 부른다. 例外 없이 벽장의 外部 밑에는 굴목이 있다.

구들에서 마당으로 出入하는 문을 창문이라 부르고, 防雨, 防風의 기능을 갖는 통판자로 된 두짝의 당길문이 있는데 이것을 거창이라 한다. 거창을 떠살문으로 한 집도 있고 生活 정도에 따라서 거창의 안쪽에 맞미달이가 있는 경우도 있다. 구들에서 상방으로 통하는 문을 지게문이라 한다. 이문은 두짝의 당길문으로 된 것이 古型이고 맞미달이로 된 것은 新型이라 생각된다.

(4) 고 광

고광은 주로 穀類(보리, 조), 豆類, 유채 등을 담는 항아리를 넣어두는 방이다. 바닥은 地面보다 높은 土床이며, 온돌 설비는 없고, 富農의 경우는 우물마루를 편 곳(表善面 城邑里 趙一訓氏宅, 南元面 新禮里 양 상옥씨宅)도 있다. 3間집과 4間집에서는 상방으로 통하는 고광문이 있다. 이 문은 두짝의 통판자로 된 당길문 또는 밀문으로 되었다. 壁은 측담(石壁) 내부에다 흙을 바른 정도이며, 1~2개의 採光用, 換氣用의 창문을 내고 있다. 고광의 넓이는 대개 6尺×10尺이다. 濟州島 西部의 大靜邑 翰京面, 翰林邑 涯月面 등지에서는 고광을 안방이라 呼稱한다. 또 고광을 원토속어로는 靑광이라 부르며 이것은 同一한 의미의 蒙古語⁸⁾ 귀광과 관계 있는 것으로서 漢字로 庫房이라 表記하는 것은 역시 日人들이 音譯 내지 意譯한 것이며, 현재 주민들은 고광이라 부르고 있다. 곡물 저장용 納庫나 광을 안끄리 밖에다 別棟으로 만들지 않고 안끄

리에 두고 큰구들과 접하게 한 것은 山地型民家에서 田字型의 구조와 類似하며, 間配置에서 未分化 狀態의 古型民家의 一部 構造를 보여 주는 것이다.

(5) 찻 방

4間집에서 볼 수 있으며, 상방과 정지 사이에 4方 1間 크기의 방이다. 바닥에 우물마루 모양 또는 장마루모양의 널을 짠 마루방이다. 여기에서 부녀자들이 炊事준비, 밥상준비, 땃돌질, 食事 등을 한다. 지방에 따라서 찻방이라 부르기도 한다. 陸地部 民家의 饌房에 해당되는 방이라 생각된다

5. 建物配置型과 附屬建物

濟州島의 民家 敷地는 그 形이 일정치 않고 불규칙한 것이 특색이다. 敷地內에서 볼 수 있는 建物을 안끄리(陸地部에서 몸채, 또는 안채에 해당)와 附屬建物로서 바끄리(바채라고도 함, 陸地部의 바깥채에 해당)·모커리(안끄리와 直角으로 놓인 건물)·이문끄리(이문간이라고도 함, 陸地部의 대문간에 해당) 등이다.

建物配置의 型은 마당의 한 邊에 안끄리만 있을 때는 一字型이 되고, 안끄리와 모커리가 直角을 이룰 때는 ㄱ字型이 되며, 마당의 3邊에 안끄리, 바끄리, 모커리가 놓일 때는 ㄷ字型이 되고, 마당의 4邊에 안끄리, 바끄리, 兩모커리가 配置될 때는 ㄱ字型이 된다. 또 안끄리와 바끄리가 마당을 사이에 두고 對向할 때는 二字型의 建物配置가 된다. 筆者가 比較的 古民家를 任意로 調査한 50戶를 建物配置의 5型으로 나누어 분석한 數値는 다음과 같다. 결코 제주도 민가 배치형의 平均代表値는 못되며, 다만 참고로 할 뿐이다.

一字型은 11戶 (22%), 二字型은 14戶 (28%), ㄱ字型은 10戶 (20%), ㄷ字型은 13戶 (26%), ㄱ字型은 2戶 (4%)이다. 筆者는 제주도 민가에서 建物配置의 基本型을 二字型으로 본다. ㄱ字型도 二字型의 變型이라 볼 수 있다. 즉, 二字모양의 建物配置를 하려고 하니 마당의 面積이 줄어들 경우는 ㄱ字型의 配置를 한다. ㄷ字型도 二字型에다 모커리를 하나 더 배치하여 ㄷ字型을 이루고 있으나

7) 張保雄, 1974, 韓國의 民家形式分類에 關한 試論, 師苑 3·4號, 東國大學, pp. 45~51.

8) 石宙明, *op. cit.*, p. 1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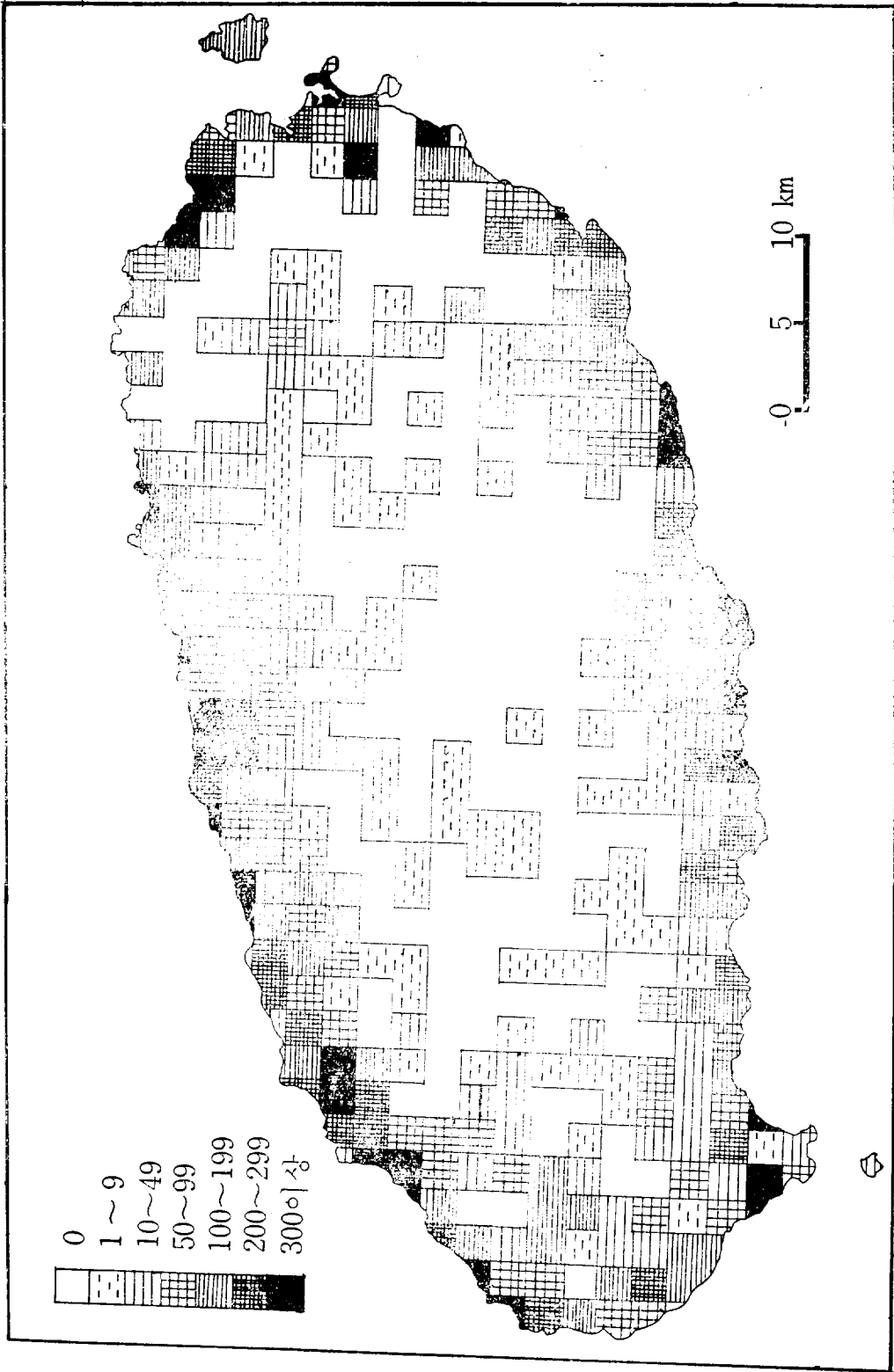


그림 17. 濟州島 家屋密度圖. 國토건설연구소 발행 (1971년 편집) 1 : 50,000 지형도에서 1 변 2 km, 면적 4 km²의 방안 안의 가옥수를 계산하여 작도했다. 범례의 수치는 가옥 호수이다.

여기서 모커리는 매우 빈약한 건물로 주로 헛간과 쇠막으로 쓰이는 木柱하나 없는 간단한 石壁의 建物이다. 口字型도 二字型에 兩모커리를 배치하여 이루어진 型이나, 兩모커리의 건물이 매우 빈약하여 二字型으로도 볼 수 있다. 一字型은 경제생활이 어려운 경우, 또는 非農家의 경우에 많이 볼 수 있고, 또 ㄱ字型에서 모커리가 안끄리에 비하여 빈약하고, 二字型에서 바끄리가 빈약할 때는 一字型으로 볼 수 있다. 다시 整理하면 二字型의 建物 配置를 基本型으로 하고, 그의 變型으로 ㄱ字型, ㄷ字型, 口字型이 생겼고, 一字型은 二字型의 未發達 또는 衰退型이라 생각된다.

敷地內的 建物은 철저한 別棟配置로 ㄱ字型이라 하더라도 中部地方의 ㄱ字型과 달라 두 부분이 떨어져 있으며, ㄷ 및 口字型도 역시 마찬가지이다. 이와 같이 別棟의 建物配置는 建築技術의 未發達로 대규모의 건물보다 소규모의 건물이 建築하기 쉽고, 또한 曲家보다는 直家가 建築하기 쉽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또 火災를 의식하고 連接된 建物보다는 別棟의 配置를 하였다고 생각된다. 東國輿地勝覽의 濟州牧 宮室條에「……皆竊以垣牆 凡爲屋共二百有六間 而每屋不相接所以備火災……」라는 記錄이 있다. 즉, 모두 담으로 둘러쳤고, 집이 도합 2백여섯칸인데 집들이 서로 연결하지 않은 것은 화재를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다. 다음에서 事例研究를 통하여 각각의 建物配置型과 附屬建物에 관해서 살펴보자. 그리고 民家는 海岸을 따라 循環하는 道路沿邊과, 海岸의 湧水泉 分布地 등에 많이 立地하고 있다(그림 17). 李朝時代는 外寇를 피하여 內陸地方에 立地하는 경향이 많았다.

(1) 二字型 建物配置

事例①：南濟州郡 城山面 古城里 金奉柱氏宅(그림 18)

典型的인 二字型이다. 바끄리에서 쇠막은 원래 정지였고, 상방은 土間으로 헛간이 되었고, 구들과 고광은 사용치 않고 있다. 제주도 민가의 안끄리에 일반적으로 구들이 1~2개로 적게 되어 있는 것은 家族制度和 관계가 있다. 즉, 長子라도 婚姻하면 別居하는 小家族制度의 間構造이기 때문이다. 더 채로 어느 民家에서나 남새를 가꾸는 우영(菜田)을 볼 수 있다. 우영이 넓은 경우에는 남새외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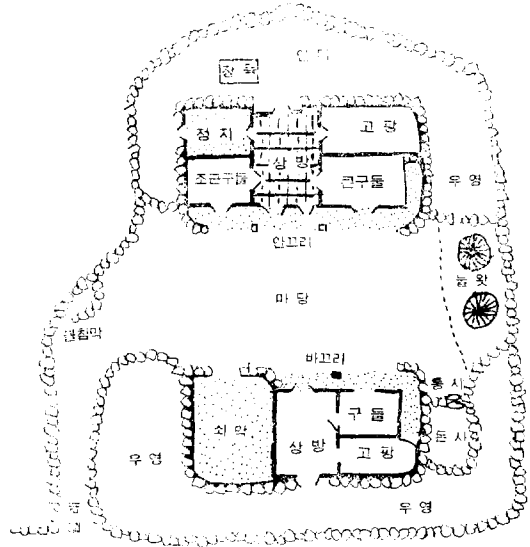


그림 18. 二字型建物配置圖. 南濟州郡 城山面 古城里

굴, 곡류를 재배한다. 우영은 自家耕作이며 共同體의 의미는 없다. 집둘레의 우영으로 隣家와 비교적 넓은 간격을 유지할 수 있어서 火災時에 직접 飛火되어 피해를 입는 경우가 없다. 늘왔은 보리 짚눌, 조짚눌, 유채대눌을 쌓아 두는 곳이다. 이들은 燃料로 사용된다. 안뒤는 陸地部의 뒤안에 해당하는 곳으로 장독이 있다. 우영과 안뒤는 牛馬가 들어 갈 수 없게 울담(石垣)으로 둘러 막혔다. 붙침막은 灰間이며 올래는 敷地의 出入口이다.

事例②：北濟州郡 朝天面 新村里 西上 洞一班 金祥然氏宅(그림 19)

안끄리는 古家이나 바끄리(이곳에서는 바끄레라 부름)는 韓戰 후에 건축되었다. 바끄리의 중앙에 있는 出入門을 먼문(일반적으로 本島에서는 이문(離間)이라 부름)이 있고, 또 이런 경우 바끄리를 먼문간(이문간)이라 부른다. 통시는 用便을 보는 곳으로 豚舍의 一部에 붙어 있는 것이 일반적인 形態이다. 통시에 밭을 움려 놓는 盤石의 높이가 58cm 이고, 그 밑까지 돼지가 와서 人糞을 처리한다. 돼지의 立場에서 보면 人糞은 間食이며, 主食은 별도로 있다. 用便하는 사람이 마당에서 보이지 않게 石壁을 쌓았고, 그위에 간단한 지붕을 만들어 비를 가리게 되었다. 豚舍와 未分離된 便所를 일반적으로 통시라 呼稱하나 통새(牛島, 表善面), 돛통(中文面 中文里) 통지(翰京面)라고도 呼稱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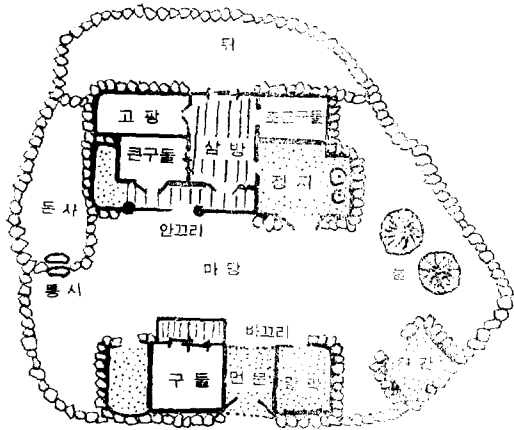


그림 19. 二字型建物配置圖. 北濟州郡 朝天面 新村里

人糞을 돼지의 飼料의 一部로 使用하는 것은 全島的인 現象이나 濟州島의 獨特한 것은 아니다. 便所겸 豚舍의 分布狀態를 살펴보면 濟州島外에 다음과 같이 밝혀졌다. 韓半島에서는 北으로부터 會寧 楊口, 忠武, 居昌, 陝川, 光陽의 諸地方, 內蒙西部 山東省全部, 山西省東과 中部, 滿洲龍井, 琉球全部, 比律賓全城 등이다.⁹⁾ 제주도의 位置로 보아 현재와 같은 통사의 傳來는 南方으로부터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다.

(2) ㄱ字型 建物配置

事例①: 南濟州郡 城山面 古城里 김 제형氏宅 (그림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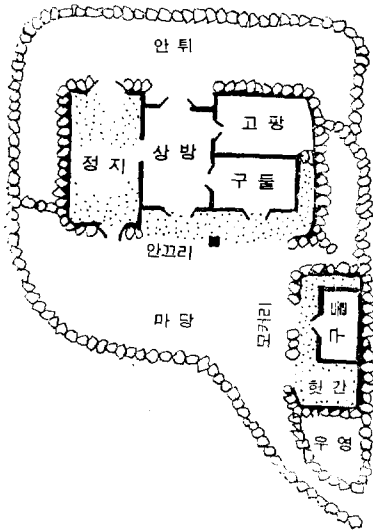


그림 20. ㄱ字型建物配置圖. 南濟州郡 城山面 古山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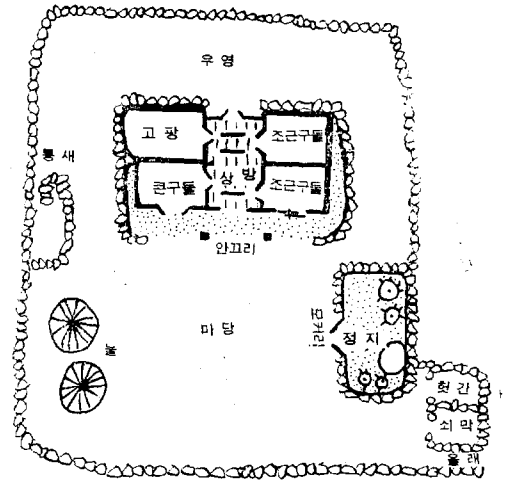


그림 21. ㄱ字型建物配置圖. 北濟州郡 舊左面 演平里 迎日洞(牛島)

100여년 전의 古民家로 現在 老婆 혼자서 居住하고 있다. 마당의 空間을 보다 넓게 利用하기 위해서 모커리가 안고리와 直角을 이루는 ㄱ字型의 建物配置가 되었다. 원래 모커리는 헛간과 쇠막이였으나 후에 쇠막이 필요없게 되자 구들을 만들었다.

事例②: 北濟州郡 舊左面 演坪里 迎日洞 (牛島) 金勇治氏宅(그림 21)

안고리와 모커리가 直角으로 되어 ㄱ字型을 이루고 있다. 모커리는 不완전한 建物이므로 보기에 따라서는 一字型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 집은 안고리와 정지가 分離된 配置이기 때문에 바깥고리의 二字型보다 모커리가 안고리에 가까이 있는 ㄱ字型이 생활에 편리하다고 생각된다. 牛島에서는 변소를 통새라 부른다.

(3) ㄷ字型 建物配置 (또는 ㄷ字逆型)

事例①: 北濟州郡 翰京面 造水里 文亮華氏宅(그림 22)

안고리와 바깥고리가 二字型을 이루고 마당의 東便에 모커리(헛간과 쇠막)가 있어서 ㄷ字型이 되었다. 南濟州郡 南元面 新禮里에서는 동쪽에 있는 모커리를 東모커리, 서쪽에 있는 모커리를 西모커리라 부른다(梁錫周氏談). 造水里의 民家は 아래에서 마당에 이르는 通路가 길다. 이것은 아래에

9) 石宙明, 1968, 濟州島隨筆, 寶晉齋, 서울, pp.96-97.

서 적집 집안이 보이지 않게 하려고 길게 만들었다고 하나, 실제로는 敷地가 넓기 때문에 올라에서 마당까지 자연스럽게 길게 길이 생긴 것이다. 中山間地帶에서는 올라에다 정을 만들어 놓은 집이 많다(사진 5). 정은 정주목(나무로 된 것과 돌로 된 것)에다 정낭(걸치는 나무)을 셋 걸쳐놓게 되어 있다. 정낭이 셋다 걸쳐 있으면 집에는 아무도 없고, 멀리 나갔다는 표시이며, 둘을 걸쳐 놓으면 근거리 에 갔다는 표시이고, 하나만 걸쳐 놓으면 이웃에 갔다는 표시이다. 정낭이 전부 내려져 있으면 집 안에 사람이 있다는 표시가 된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집에 아무도 없을 때 牛馬가 들어오지 못하게 하기 위한 시설이다.



사진 5. 정낭과 정주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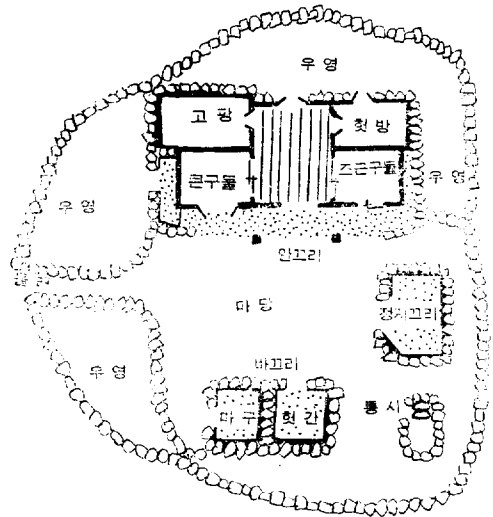


그림 23. ㄷ字型建物配置圖. 北濟州郡 朝天面 北村里.

안고리에 정지가 없고 모커리에 해당하는 곳에 정지꼬리를 別棟으로 세우고 있다. 바쁘리는 말막(마구)과 헛간으로 되었고, 전체적으로 마당을 중심으로 ㄷ字逆型을 이루었다. 집을 둘러싼 울담(石垣)의 높이는 일정치 않으나 대개 그 집의 地面과 처마 끝의 높이 정도이다. 일반적으로 築石은 외출로 하나, 强風이 자주 부는 방향은 겹으로 높게 쌓는 경우도 있다. 울담의 높이는 오랜 經驗으로 현재와 같이 되었고 현재보다 높으면 바람에 의해서 到壞된다고 한다. 집 둘레의 울담 機能은 防風, 境界表示, 牛馬의 任意出入防止, 防盜, 집안이 밖에서 보이지 않게, 敷地內의 角石處理場 등이다.

本島의 耕作景觀의 特徵인 耕地 周圍의 石垣의 起源에 關해서 東國輿地勝覽의 牧濟牧의 風俗條에 本文鑑을 引用해서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地多亂石 乾燥素無水田 唯麩麥豆粟生之 畝田古無疆畔 强暴之家 日以蠶食 百姓苦之 金坵爲判官 問民疾苦 聚石簡垣爲界 民多便之」

즉, 예전에는 경계 독이 없어서 강포한 집에서 날마다 밭을 먹어 들어가므로 백성들이 괴롭게 여겼는데 金坵가 判官이 되어 백성의 고통되는 바를 물어서 돌을 모아 담을 쌓아 경계를 만드니 백성들이 편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金坵는 13世紀의人物인 고로, 제주도 경지 주위의 울담을 13세기부터 시작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현재에도 耕地 주위에 울담을 쌓는 것은 境界表示의 機能 외에 牛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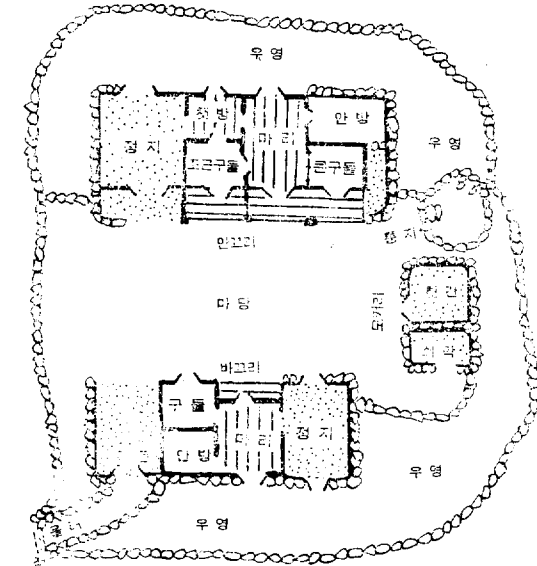


그림 22. ㄷ字型建物配置圖. 北濟州郡翰京面造水里.

事例②: 北濟州郡 朝天面 北村里 김진구氏宅 (그림 23)

馬의 出入防止, 耕地에서 나오는 礫石의 處理場, 또 乾燥時 바람에 의해서 土壤이 날리는것을 억제하는 것 등이다. 집과 밭의 울담은 제주도 文化景觀의 한 특색이다.

(4) 口字型 建物配置

事例① : 南濟州郡 表善面 城邑里 十二班 趙一訓氏宅(그림 24)

안끄리의 家坐가 正南向이고, 바끄리가 北向으로 안끄리를 對向하고, 마당의 東便에 모커리(쇠막), 西便에 모커리(연차 방아간) 등으로 □字型 建物配置로 되어 있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안끄리와 바끄리가 완전한 建物이고 兩모커리는 不完全한 建物이어서, 二字型에 兩모커리가 附加된 것으로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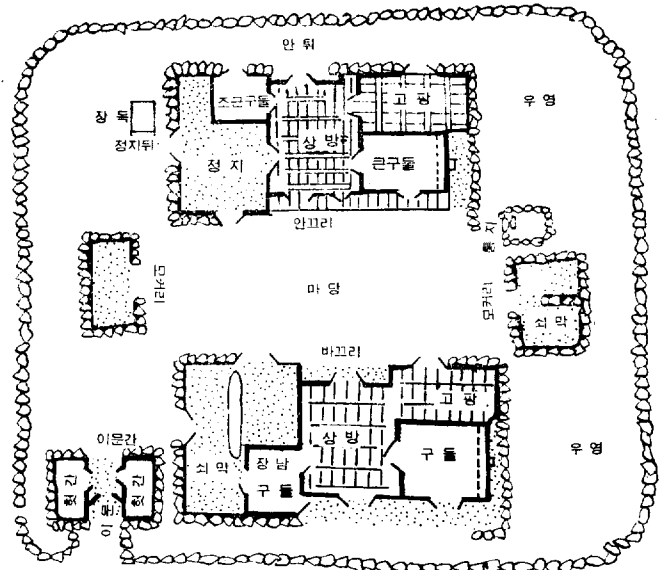


그림 24. 口字型建物配置圖. 南濟州郡 表善面城 邑里

(5) 一字型 建物配置

事例① : 北濟州郡 翰京面 造水里 한양동 13, 金振玉氏宅(그림 25)

현재 老夫婦가 居住하는 2間막살이다. 경제적 생활이 貧困하면, 안끄리 외에 다른 附屬建物を 세울 수 없고, 따라서 敷地內에서의 家屋 배치는 一字型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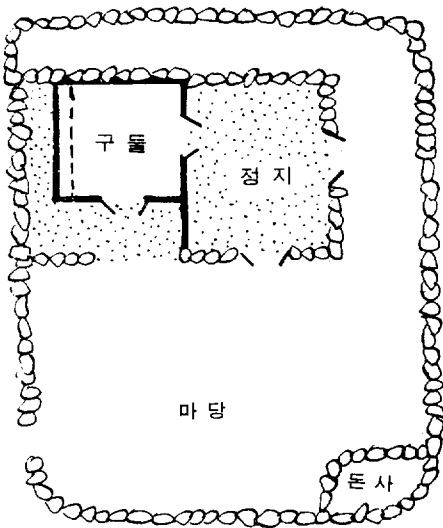


그림 25. 一字型建物配置圖. 北濟州郡 翰京面 造水里 한양동 13

事例② : 南濟州郡 中文面 中文里 1557 李奉元氏宅(그림 26)

안끄리의 곁 2間 정지에 조근구들을 만든 4間 집의 하나이다. 헛간과 쇠막의 바끄리가 작고, 石壁으로 된 불완전한 建物로 되어 전체적으로 二字型으로 보기 어렵고 一字型으로 보는 것이다. 4間집의 경우는 안끄리 내부의 間配置가 다양하므로 바끄리와 모커리의 발달이 잘 안 되고, 一字型의 배치가 되기 쉽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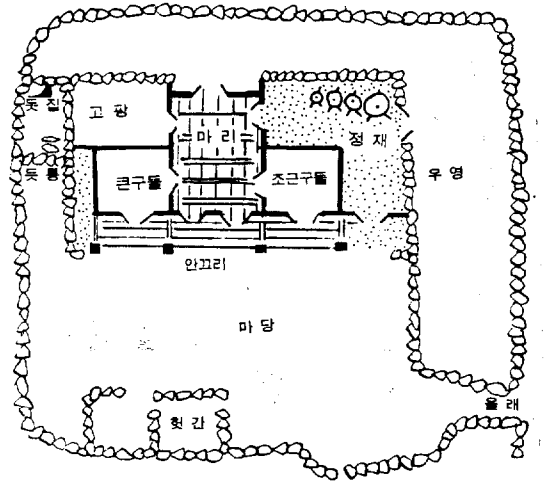


그림 26. 一字型建物配置圖. 南濟州郡 中文面 中文里 1557

6 結 言

제주도 민가의 지붕은 耐風的인 形態로 낮고 둥근 모양이며, 새줄로 網目 모양으로 엮어매었다. 網目の 크기는 25×25 cm 내외이고, 새줄의 굵기는 3~4 cm 이나 本島의 東部보다 西部에서 더 굵게 나타난다. 李朝時代와 日帝時代에는 지붕 위에 長木을 橫結하여 엮어 놓은 것을 볼 수 있었다. 가장 普遍的인 지붕의 材料는 새(茅)이다.

제주도 민가의 間配置型은 2間型, 3間型, 4間型 등 모두 3類型으로 分類되며, 이 중에서도 基本型이고 標準型이라 할 수 있는 것은 3間型이다. 주요 間配置의 要素는 정지, 상방, 구들, 곶판, 찻방 등이다.

建物配置의 基本型은 二字型이며, 卍字型, 卍字型, □字型은 二字型의 變型이며 一字型은 二字型의 未發達型 또는 衰退型으로 생각된다. 建物과 建物은 連接되지 않고, 철저한 別棟의 配置를 하고 있다. 이러한 것은 建築技術의 未發達과 또 火災를 意識한 건물 배치형태이다. 부속건물로는 바끄리, 모커리, 이문간 등이 있다.

濟州島 民家の 系統은 南方文化的 요소와 大陸文化的 요소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정지의 솔결이 형태는 半島部와 전연 다른 南方的 요소이며, 상방도 원래는 土間으로 土座生活을 하다가 후에 板床으로 변한 南方的 요소라 생각된다. 便所와 豚舍가 未分離의 狀態로 있는 것도 南方文化的 한 요소라 할 수 있다. 大陸文化요소로는 부섭과 溫突을 들 수 있다. 부섭은 몽고의 室內 常備爐의 名稱과 일치되는 것으로 몽고에서의 傳來 可能性을 암시해 주며, 溫突은 16世紀까지 一般 民家에 보급되지 못하였고 일부 支配層에만 있었다. 따라서 民家에 온돌이 보급된 것은 16世紀 以後라 생각된다.

濟州島 民家は 원래 南方的인 系統의 것이었으나 高麗時代에 蒙古文化의 영향을 받았고, 李朝時代에 韓半島의 영향을 크게 받았고, 지금도 계속해서 부분적으로 陸地民家化되는 과정에 있다.

따라서 現在 濟州島 民家は 南方文化的 요소와 大陸文化的 요소가 혼합된 형태로 남아 있고, 半島部의 山地型民家나 平野型民家와는 다른 別個의 濟州島型 民家를 형성하고 있다.

(東國大學校)

A Study of Rural Houses in Quelpart Island (Cheju Do)

Bo Woong Chang

Summary

Quelpart Island, lying some sixty miles off the southwestern coast, is Korea's largest island. It is an elliptical-shaped land, some 718 square miles in area. Quelpart was first brought to the attention of the western world by Hendrick Hamel, a dutch sailor, who was shipwrecked upon its coast in 1653. The dutch name of quelpart, which became accepted in modern European literature.

An attempt has been made to study the rural houses and their types in the context of the physical as well as cultural environments of Quelpart Island. This paper is to describe actual state of rural house in Quelpart Island, and to classify the floor plans and arrangements of buildings into some patterns.

Thatch is the universal roofing material for all types of rural houses, with the exception of the better houses and shrines, which are tiled. Thatched roofs were bound with straw-ropes in order to protect from the early autumn typhoons and sea winds.

The basic house plan is rectangular in shape, divided into two, three, and four sections. The standard house plan type, dividing into three sections, is distributed most widely. House plan elements are a kitchen, a wooden floor, a room, and a store-room. The inside structure of kitchen and wooden floor would be the elements of the southern culture, which were transmitted through sea route. The room with ondol (heating equipment) and store-room with earth floor would be the northern culture, which were introduced from the Korean Peninsula.

The arrangements of buildings are of five general types: (1) =-shaped, (2) L-shaped, (3) U-shaped, (4) □-shaped, and (5) —-shaped. The standard type of arrangements is =-shaped type, others would be the variations of =-shaped type.

The lava rock is the universal building material for all type of dwellings and for the walls, which protect from the winds and rains. Stone fences are common.